

대학생의 취업의식과 취업준비행동분석을 통한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석대레사* · 최서현**

A Study of Ways of Enhancement Employment through Employment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 and Analysis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uk, Theresa · Choi, Seo-Hyun

Abstract

Recently due to rapidly chang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 for businesses to reduce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in the labor market is decreased especially, the unemployment rate for university graduates is a socially serious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awareness about the employment of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sis prepared for the employment behavior, as this, we hope to prepare plans for increase of employment-adoption.

The survey of research enrolled in the D University study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courses to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278 people conducted by the target. To test the Hypothes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26 to 27, 2009, and the collected date of 260 were analysed by way of discrepancy and Frequency analysis method through SPSS package.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hope to work within 1 year after graduation. They hope to work in large companies but small, private companies also showed a high rate and also they intend to irregular employment.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universities will need to provide concrete and systematic information relate to employment. Also financial support for employment and professionals such as career counseling that will need to secure.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수료, 경영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시간강사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수료, 경영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시간강사

I.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과거 수십 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결과로 인해 대학졸업 인력은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다. 이러한 임금격차와 근무조건 때문에 대졸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청년들의 취업률은 감소추세이며 특히 대졸자의 실업률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200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2,81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천명(-0.4%)감소하였고,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57.3%로 2001년 2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하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8.2%로 증가한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청년층 취업준비생과 청년(N.E.E.T :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대졸자의 취업은 더욱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취업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년층의 미취업에 따른 유희화는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근로소득 과세대상 축소에 따른 정부 재정의 손실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잦은 구직 실패에 따른 근로의욕 감소와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유희화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졸업한 학생들도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재수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4학년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들의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취업원서 한 번 내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대학교 1, 2, 3학년생 또한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의식조사와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을 분석하여 학교에서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취업의식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1. 직업세계 인식과 진로발달의 이해

직업이란 생계의 유지와 사회적 역할 분담을 도모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나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연, 2006).

Jahoda(1992)는 직업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 '잠재적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직업이 ①그들의 일과를 결정하고, ②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접촉을 갖고, ③자신을 뛰어넘는 목표나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이끌며, ④개인적 지위나 정체성의 측면을 정의하고, ⑤활동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Warr(1987)는 직업이 제공하는 통제와 기회, 기술의 사용, 사람간의 접촉, 외적인 목표와 직무요구, 다양성, 주변 환경의 명료함, 금전의 확보, 신체적 안전, 존중받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많은 환경특성들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정소영, 2009). 이처럼 직업은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및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능력·성격·적성·흥미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은 직업세계에 관한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직업세계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한 결과로 얻어지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스스로 직업 경험을 하거나 직업현장을 관찰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직업경험을 혹은 관찰 결과를 접하는 것이다(신현순, 2009).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세계의 탐색은 진로발달단계와 진로발달이론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먼저 진로에 대한 발달단계는 초등학교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 대학교·성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Tiedman & O'Hara(1963)은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사회에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를 통합해서 각자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진로정체(career identity)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주요 목표라고 한다.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ies)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진로교육에 도입한 것으로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는 입장이다(이재창, 1986). 즉, 인간의 다른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지는 것으로서, 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을 구체화하며, 직업 기회를 배우며, 시간제·전일제 환경 또는 여가선

용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평생의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김충기, 1995).

이처럼 개인의 직업선택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발달과정으로 보는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윤명희·서희정, 2008).

<표 1>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이론

학자	단계	시기	특징
Ginzberg	현실기	17~ 성인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욕구와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 - 세분화된 세 하위단계로 구분 ①탐색단계 : 취업기회를 탐색하고 취업에 노력하는 시기 ②구체화단계 : 자신의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시기 ③특수화단계 : 결정을 구체화하여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고도로 세분화·전문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기
Super	탐색기	15~ 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 - 세분화된 세 하위 단계로 구분 ①잠정기 :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해서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 ②전환기 :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여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기 ③시행기 :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최초로 선택하는 시기
Tiedman & O'Hara	예상기	25~ 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업기라고도 함 - 세분화된 네 하위단계로 구분 ①탐색기 : 진로목표, 설정, 대안탐색,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에 대한 예비평가 ②구체화기 : 가치관, 목표, 보수, 보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 ③선택기 :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 ④명료화기 : 결정을 신중히 분석, 검토하여 결론을 내림

자료 : 신현순(2009), 대학생의 직업세계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이상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생은 직업생활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로서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에 급급하여 자신의 진로를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업세계의 충분한 탐색을 통하여 진로를 준비하고 평생 진로개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속한다고 하였다(신현순, 2009).

2. 진로탐색행동의 이해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는 사회로 진출하려는 대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이 요구되어진다. 이 시기동안 대학생들은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며 생활전반에서 독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첫 직장은 향후 직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등교육이상이 교육을 받은 경우 첫 직장은 직업적 위치와 수입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teffy, Shaw & Noe, 1989).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은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및 직업현황, 전망,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과 같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수집활동이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 또는 각 직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 등의 직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 상호작용 과정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Jordan(1963)은 직업탐색행동이란 직업을 준비하고 취직하여,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자신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인지적, 행동수준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 Berlyne(1955)은 진로탐색을 직업,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과 인식으로 규정하였고 탐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을 탐색의 장소, 탐색의 방법, 탐색의 양 및 탐색의 초점으로 보았으며 정보의 원천은 '환경'과 '자기 자신'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진로탐색을 크게 환경탐색과 자기탐색으로 나누었

다. 먼저 환경탐색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그 외의 정보원으로부터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고, 자기탐색은 자신의 장·단점, 가치관, 전략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업탐색행동이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과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직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쌓는 행동이라고 하였다(이현정, 2008).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재학생들의 개인특성별 취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보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설문은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경영대학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총 27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 18명을 제외한 260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에 해당하는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특성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	90	34.6
	여	170	65.4
학년	2학년	112	43.1
	3학년	107	41.2
	4학년	41	15.8
전공계열	인문계열	69	26.6
	사회(상경제열)	146	56.2
	공학계열	10	3.8
	자연계열	24	9.2
	예체능계열	11	4.2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34.6%)이 여학생(65.4%)로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경제성장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인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43.1%, 3학년이 41.2%, 4학년이 15.8%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26.6%, 상경제열 56.2%, 공학계열 3.8%, 자연계열 9.2%, 예체능계열 4.2%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2. 측정도구

기존의 취업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완성

하였으며 측정내용은 크게 2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대학 재학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별, 학년에 대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재학생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문항으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적 인적사항에 관한 특성 및 취업을 위한 준비내용에 대한 분포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 대한 특성

특성		빈도	퍼센트
학점등급	4.0 이상	47	18.1
	3.5~4.0	123	47.3
	3.0~3.5	70	26.9
	3.0 이하	14	7.7
자격증 취득여부	있음	128	60.8
	없음	102	39.2
인턴십 참가여부	있음	21	8.1
	없음	239	91.9

학점별등급을 살펴보면 3.5~4.0점(47.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3.5점(26.9%), 4.0점(18.1%)이상, 3.0점 이하(7.7%)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증 취득여부에서는 자격증을 소유한 학생이 60.8%, 그렇지 못한 학생이 39.2%로 나타났다. 자격증에 대한 취득률이 높은 것은 한국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유연화가 심화되고 노동력의 산업간, 직업간 이동이 이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이전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턴십 참가여부는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데,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근로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 업무에 그치는 근로경험일 경우, 정규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학생들의 경우 현재까지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이 8.1%, 참가한 적이 없는 학생이 91.9%로 조사되어 앞으로 이들에게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표 4> 취업을 위한 준비내용

특성		빈도	퍼센트
졸업 후 진로	국내학교로의 진학	12	4.6
	어학연수	5	1.9
	유학	15	5.8
	취업	206	79.2
	창업	12	4.6
	육아 및 가사	2	0.8
	기타	8	3.1
희망직종	대기업	91	35.0
	정부기관(공무원/군인)	33	12.7
	정부투자/공사합동기관	36	13.8
	연구/교육기관/법인단체	16	6.2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43	16.5
	외국인 회사	11	4.2
	기타	30	11.5
취업 준비기간	6개월 이내	68	23.2
	1년 이내	123	47.3
	1년 6개월 이내	18	6.9
	2년 이내	30	11.5
	2년 이상	21	8.1
취업 시 고려사항	고용 안정성	58	22.3
	급여	86	33.1
	전공분야 관련성	26	10.0
	개인발전 가능성	55	21.2
	직업전망	21	8.1
	복리후생	11	4.2
	기타	3	1.2
취업 시 우려사항	지방대 출신	183	20.4
	성별차별	17	6.5
	나이차별	12	4.6
	외모	8	3.1
	기타	40	15.4

비정규직 취업의사	있음	111	42.7
	없음	149	57.3
취업 준비 영역	자격증 취득	110	42.3
	취업준비	56	21.5
	인턴 등의 취업경험	13	5.0
	해외연수계획	15	5.8
	학교 교육	53	20.4
	취업학원	10	3.8
	구직활동	3	1.2
취업 준비방법	TV방송	6	2.3
	그룹 스터디	29	11.2
	학원수강	81	31.2
	학교 내 특강수강	10	3.8
	인터넷 강의	47	18.1
	혼자공부	79	30.4
	기타	8	3.1
구직활동 방식	개인적 연결망	62	23.8
	제도적 연결망	82	31.5
	공공 정보망	116	44.6

졸업 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9.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경영대학의 전공필수과목으로 경영학부생의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며, 경영학과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이므로 표본집단의 특성상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다음으로 국내학교로의 진학, 어학연수, 유학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모라토리움(유예현상), 즉 당분간 취업을 보류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진다.

졸업 후 선호하는 희망 직종으로 대기업이 35%로 1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 기업이 16.5%로 조사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 및 공사합동기관이 13.8%, 공무원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 및 복지후생이 타 직장보다 우수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공사합동기관에 대한 비율이 26.5%로 대체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부투

자 및 공사합동기관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결과라 짐작할 수 있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 자유기술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나 소규모 학원 강사, 창업 등의 일이 많았고,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1년 이내가 47.3%, 6개월 이내가 23.2%로 70.5%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후 1년까지를 기준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취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급여가 33.1%, 고용안정성이 22.3%, 개인발전 가능성이 21.2%, 전공분야 관련성이 10.0%, 직업에 대한 전망이 8.1%, 기업의 복지후생이 4.2%, 기타가 1.2%로 조사되었다.

취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이 20.4%, 기타가 15.4%, 성별 6.5%, 나이 4.6%, 외모 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취업 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내 대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지방대학생이라는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 취업기회조차 발탈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생들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취업정보의 효율적 제공과 더불어 취업경험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

졸업 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취업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이 42.7%, 그렇지 않은 학생이 57.3%로 조사되었다.

현재 취업을 대비하여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자격증 취득이 42.3%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외국어 성적이 21.5%, 학교 성적이 20.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으로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성적, 학교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자격증 취득의 경우 취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의 경우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다음으로 외국어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여지는데, 우리 사회가 세계화, 글로벌화로 기업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교성적의 경우 기존의 필기시험이 점점 사라지면서 면접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필기시험을 대체할 학교 성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직장 및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의지로 보여 진다.

재학생들의 구체적인 취업준비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학원수강이 31.2%, 혼자 공부한다는 응답이 30.4%, 인터넷 강의 18.1%, 그룹 스터디가 11.2% 등으로 조사되었다.

구직활동방식에는 개인적 연결망, 제도적 연결망, 공공정보망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연결망은 가족이나 친지, 지도교수, 친구 또는 선배를 통한 구직활동으로 구분하였고, 제도적 연결망은 학교 내 취업정보실, 공공직업안내소, 사설직업안내소, 취업박람회로 보았으며, 공공정보망에는 인터넷, 신문, TV 등의 매체를 통한 구직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응답결과, 공공정보망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재학생들은 구직활동 시 개인적 연결망이나 제도적 연결망보다는 가장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은 TV, 신문, 인터넷 등 공공정보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워크넷, 공공정보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기관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공정보망에서의 시스템적인 보완을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의 기회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연결망을 통한 방식이 31.5%로 제도적 연결망의 경우 대학차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취업알선프로그램을 포함한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준비행동으로서 재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연결망이 미흡한 이유는 공공안내소, 학교의 역할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 매커니즘에서 수요, 공급을 연결해 주는 제도적 연결망의 역할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공공정보망과 개인적 연결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 취업지도 부서에서는 재학생들이 직업훈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정보를 정리,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재학생의 비율이 23.67%로 조사되었는데, 개인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제공하는 직업정보는 재학생들의 특성과 적성 및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2009년 10월 26일~27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응답된 설문지는 각 문항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빈도분석, T-검증과 ANOVA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학점등급

<표 5> 학점등급

특성		4.0 이상	3.5~4.0	3.0~3.5	2.5 이하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5	41	32	12	90
		%	5.6	45.6	35.6	13.3	100
	여학생	빈도	42	82	38	8	170
		%	24.7	48.2	22.4	4.7	100
학년	2학년	빈도	16	58	30	8	112
		%	14.3	51.8	26.8	7.2	100
	3학년	빈도	21	49	23	8	101
		%	20.8	48.5	22.8	7.9	100
	4학년	빈도	8	13	16	4	41
		%	20.0	32.5	37.5	10.0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14	29	24	2	69
		%	20.3	42.0	34.8	2.9	100
	상경	빈도	22	72	34	18	146
		%	15.1	49.3	23.3	12.4	100
	공학	빈도	2	2	6	0	10
		%	20.0	20.0	60.0	0	100
	자연	빈도	2	18	4	0	24
		%	8.3	75.0	16.7	0	100
	예체능	빈도	7	2	2	0	11
		%	63.6	18.2	18.2	0	100

재학생들의 평소 학점관리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대체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4.0이상 학점인 비율이 5.6%, 3.5~4.0의 학점이 45.6%로 평균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3.5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비율이 51.2%임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 4.0이상의 학점비율이 24.7%, 3.5~4.0의 학점이 48.2%로 3.5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비율이 72.9%로 남학생에 비해 21.7%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평소 학점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3.5이상의 학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점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전공계열별로는 3.5이상의 학점등급으로 보았을 때, 자연계열이 8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체능계열이 81.8%, 상경계열이 64.4%, 인문사회계열이 62.3%, 공학계열이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자격증 취득 여부

<표 6> 자격증 취득 여부

특성		있음	없음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52	38	90
		%	57.8	42.2	100
	여학생	빈도	106	64	170
		%	62.4	37.6	100
학년	2학년	빈도	57	55	112
		%	50.9	49.1	100
	3학년	빈도	77	24	101
		%	76.2	23.8	100
	4학년	빈도	21	20	41
		%	51.2	49.8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43	26	69
		%	62.3	37.7	100
	상경	빈도	81	65	146
		%	55.5	44.5	100
	공학	빈도	6	4	10
		%	60.0	40.0	100
	자연	빈도	20	4	24
		%	83.3	16.7	100
	예체능	빈도	8	3	11
		%	72.7	27.3	100

현재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전체적으

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았고(4.6%), 학년별로는 2학년이 50.9%, 3학년이 76.2%, 4학년이 51.2%로 3학년이 4학년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열(83.3%)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72.7%),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상경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3. 인턴십 참가여부

<표 7> 인턴십 참가여부

특성			있음	없음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2	88	90
		%	2.2	97.8	100
	여학생	빈도	19	151	170
		%	11.2	88.8	100
학년	2학년	빈도	2	110	112
		%	1.8	98.2	100
	3학년	빈도	13	88	101
		%	12.9	87.1	100
	4학년	빈도	6	35	41
		%	15.0	85.0	100
전공계열	인문사회	빈도	9	61	69
		%	11.6	88.4	100
	상경	빈도	6	140	146
		%	4.1	95.9	100
	공학	빈도	4	6	10
		%	40.0	60.0	100
	자연	빈도	2	22	24
		%	8.3	91.7	100
	예체능	빈도	1	10	11
		%	9.1	90.9	100

재학 중 인턴십을 참가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11.2%)의 비율이 남학생(2.2%)에 비해 높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1.8%, 3학년이 12.9%, 4학년이 15.0%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턴십에 대한 경험이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40%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경계열이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경우 산학협력 및 실습을 위한 현장체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반대로 상경계열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의 본사가 부산보다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인턴십 채용의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4. 연구대상자의 졸업 후 진로

<표 8> 졸업 후 진로

특성		국내 학교 진학	어학 연수	유학	취업	창업	육아 및 가사	기타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0	1	7	64	12	2	4	90
		%	0	1.1	7.8	71.1	13.3	2.2	4.4	100
	여학생	빈도	12	4	8	142	0	0	4	170
		%	7.1	2.4	4.7	83.5	0	0	2.4	100
학년	2학년	빈도	4	1	11	86	2	2	6	112
		%	3.9	0.9	9.8	76.8	1.8	1.8	5.4	100
	3학년	빈도	6	2	4	80	7	0	2	101
		%	5.9	2.0	4.0	79.2	6.9	0	2.0	100
	4학년	빈도	2	2	0	35	2	0	0	41
		%	5.0	5.0	0	85.0	5.0	0	0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2	4	2	55	4	2	0	69
		%	2.9	5.8	2.9	79.7	5.8	2.9	0	100
	상경	빈도	4	1	9	118	6	2	6	146
		%	2.7	0.7	6.2	80.8	4.1	1.4	4.1	100
	공학	빈도	2	0	2	6	0	0	0	10
		%	20.0	0	20.0	60.0	0	0	0	100
	자연	빈도	4	0	2	18	0	0	0	24
		%	16.7	0	8.3	75.0	0	0	0	100
	예체능	빈도	0	0	0	9	2	0	0	11
		%	0	0	0	81.8	18.2	0	0	100

실제 졸업 후 재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취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71.1%, 창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13.3%, 그 다음으로 유학, 기타, 육아 및 가사, 어학연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취업이 83.5%, 국내학교진학이 7.1%, 유학 4.7%, 어학연수 및 기타가 각각 2.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겠다는 의견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창업을 하겠다는 의견도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실제 취업준비를 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탐색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이 취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81.8%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 또한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예체능의 경우 강습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학원을 개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다음으로는 상경계열이 80.8%, 인문사회계열이 79.7%, 자연계열이 75.0%, 공학계열이 6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상경계열과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부터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해서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공학계열의 경우 국내대학진학과 유학이 각각 20%로 나타나 취업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5. 희망 직종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학생(29.4%)보다는 남학생이 대기업(4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대기업과 더불어 정부투자 및 공기업, 공무원,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실제 취업난과 지역적인 차별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어려우므로 현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특히 학년별 분포에서 취업문제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4학년의 경우 32.5%가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공계열별에서도 공학계열을 제외한 인문사회, 상경, 자연, 예체능계열에서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희망 직종

특성		대기업	공무원	정부 투자/ 공기업	연구/ 교육 기관	중소/ 개인 기업	외국인 회사	기타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41	7	4	6	17	5	10	90
		%	45.6	7.8	4.4	6.7	18.9	5.6	11.1	100
	여학생	빈도	50	26	32	10	26	6	20	170
		%	29.4	15.3	18.8	5.9	15.3	3.5	11.8	100
학년	2학년	빈도	33	13	20	10	17	5	14	112
		%	29.5	11.6	17.9	8.9	15.2	4.5	12.5	100
	3학년	빈도	42	18	9	6	10	4	12	101
		%	41.6	17.8	8.9	5.9	9.9	4.0	11.9	100
	4학년	빈도	13	2	6	0	13	2	5	41
		%	32.5	5.0	15.0	0	32.5	5.0	10.0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26	10	10	0	11	4	8	69
		%	37.7	14.5	14.5	0	15.9	5.8	11.6	100
	상경	빈도	49	17	20	14	21	5	20	146
		%	33.6	11.6	13.7	9.6	14.4	3.4	13.7	100
	공학	빈도	2	4	0	0	2	2	0	10
		%	20.0	40.0	0	0	20.0	20.0	0	100
	자연	빈도	12	2	4	2	4	0	0	24
		%	50.0	8.3	16.7	8.3	16.7	0	0	100
	예체능	빈도	2	2	5	0	0	0	2	11
		%	18.2	18.2	45.5	0	0	0	18.2	100

6.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예상준비기간

대다수의 재학생들은 졸업 전 이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여, 졸업 전 미취업일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예상하고 있는 준비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표 10>과 같다. 응답결과 졸업 후 취업까지의 예상준비기간은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과 무관하게 대부분이 1년 이내로 나타나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졸업 전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학년이 내려갈수록 취업 예상준비기간이 빠른 것으로 보아 취업에 대한 준비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예상준비기간

특성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6개월 이내	2년 이내	2년 이상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17	47	5	8	13	90
		%	18.9	52.2	5.6	8.9	14.4	100
	여학생	빈도	51	76	13	22	8	170
		%	30.0	44.7	7.6	12.9	4.7	100
학년	2학년	빈도	28	51	8	14	11	112
		%	52.0	45.5	7.1	12.5	9.8	100
	3학년	빈도	20	48	10	15	8	101
		%	19.8	47.5	9.9	14.9	7.9	100
	4학년	빈도	18	20	0	0	3	41
		%	43.9	48.7	0	0	7.4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16	31	4	12	6	69
		%	23.2	44.9	5.8	17.4	8.7	100
	상경	빈도	40	69	10	16	11	146
		%	27.4	47.3	6.8	11.0	7.5	100
	공학	빈도	2	8	0	0	0	10
		%	20.0	80.0	0	0	0	100
	자연	빈도	8	10	4	2	0	24
		%	33.3	41.7	16.7	8.3	0	100
	예체능	빈도	2	5	0	0	4	11
		%	18.2	45.5	0	0	36.4	100

7. 취업 시 고려사항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임금이 취업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임금 27.8%, 고용안정성 21.4%, 발전가능성(개인발전 가능성) 2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임금 35.9%, 고용안정성과 발전가능성(개인발전 가능성)이 각각 21.2%로 조사되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임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결혼 후 육아양육 및 가사로 인한 조기퇴사를 예상하는 바, 장기근속을 위한 전공 관련성 및 직장전망보다는 입사 후 임금수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로 보여 진다.

학년별로는 2, 3학년의 경우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임금수준보다는 고용안정성이 3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미취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취업 후 받게 될 보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상경계열, 자연계열에서는 임금,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개인발전 가능성)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공학계열에서는 임금, 전공 관련성, 발전가능성(개인발전 가능성), 직업전망이 각각 20%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예체능의 경우 직업전망이 27.3%로 높게 나타났고, 고용안정성, 전공 관련성, 복지후생이 각각 18.2%로 나타났고, 임금의 경우 9.1%로 나타나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11> 취업 시 고려사항

특성		고용 안정성	임금	전공 관련성	발전 가능성	직업 전망	복지 후생	기타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22	25	10	19	9	4	1	90
		%	21.4	27.8	11.1	21.1	10.0	4.4	1.1	100
	여학생	빈도	36	61	16	36	12	7	2	170
		%	21.2	35.9	9.4	21.2	7.1	4.1	1.2	100
학년	2학년	빈도	27	37	14	22	6	5	1	112
		%	24.1	33.0	12.5	19.6	5.4	4.5	0.9	100
	3학년	빈도	17	38	8	21	11	6	0	101
		%	16.8	37.6	7.9	20.8	10.9	5.9	0	100
	4학년	빈도	14	10	3	10	2	0	2	41
		%	32.5	25.0	7.5	25.0	5.0	0	5.0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15	24	6	18	4	0	2	69
		%	21.7	34.8	8.7	26.1	5.8	0	2.9	100
	상경	빈도	35	49	16	28	10	7	1	164
		%	24.0	33.6	11.0	19.2	6.8	4.8	0.7	100
	공학	빈도	0	2	2	2	2	2	0	10
		%	0	20.0	20.0	20.0	20.0	20.0	0	100
	자연	빈도	6	10	0	6	2	0	0	24
		%	25.0	41.7	0	25.0	8.9	0	0	100
	예체능	빈도	2	1	2	1	3	2	0	11
		%	18.2	9.1	18.2	9.1	27.3	18.2	0	100

8. 취업 시 우려사항

<표 12> 취업 시 우려사항

특성		지방대 출신	성 차별	나이 차별	외모	기타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65	5	2	4	14	90
		%	72.2	5.6	2.2	4.4	15.6	100
	여학생	빈도	118	12	10	4	26	170
		%	69.4	7.1	5.9	2.4	15.3	100
학년	2학년	빈도	92	9	0	0	11	112
		%	82.1	8.0	0	0	9.8	100
	3학년	빈도	61	4	9	8	19	101
		%	60.4	4.0	8.9	7.9	18.8	100
	4학년	빈도	26	4	2	0	9	41
		%	62.5	10.0	5.0	0	22.5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44	4	6	0	15	69
		%	63.8	5.8	8.7	0	21.7	100
	상경	빈도	114	11	0	4	17	146
		%	18.1	7.5	0	2.7	11.6	100
	공학	빈도	8	0	0	0	2	10
		%	80.0	0	0	0	20.0	100
	자연	빈도	10	2	6	2	4	24
		%	41.7	8.3	25.0	8.3	16.7	100
	예체능	빈도	7	0	0	2	2	11
		%	63.6	0	0	18.2	18.2	100

취업을 희망할 때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지방대출신이라는 점이 취업에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지방대출신이라는 점이 72.2%, 기타 15.6%, 성차별 5.6%, 외모 4.4%, 나이차별 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지방대출신이라는 점이 69.4%, 기타가 15.3%, 성차별이 7.1%, 나이차별이 5.9%, 외모가 2.4%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지방대출신이라는 것과 더불어 남학생에 비해 성차별과 나이차별에 대한 우려까지 있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9. 비정규직 취업의사

<표 13> 비정규직 취업의사

특성			있음	없음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36	54	90
		%	40.0	60.0	100
	여학생	빈도	75	95	170
		%	44.1	55.9	100
학년	2학년	빈도	40	72	112
		%	35.7	64.3	100
	3학년	빈도	49	52	101
		%	48.5	51.5	100
	4학년	빈도	19	22	41
		%	46.4	53.6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35	34	69
		%	50.7	49.3	100
	상경	빈도	54	92	146
		%	37.0	63.0	100
	공학	빈도	2	8	10
		%	20.0	80.0	100
	자연	빈도	12	12	24
		%	50.0	50.0	100
	예체능	빈도	8	3	11
		%	72.7	27.3	100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3>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있는 비율이 40.0%, 없음이 60.0%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44.1%는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의사가 있음을, 55.9%는 없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취업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보여 진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의사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사회계열이 50.7%, 자연계열이 50%, 상경계열이 37%, 공학계열이 20%로 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사설학원 및 개인교습의 형태의 취업이 많은 관계로 비정규직에 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상경계열

및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더불어 정규직에 대한 채용이 활발하므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정규직 취업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의사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10. 취업을 대비한 준비영역

<표 14> 취업을 대비한 준비영역

특성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취업 경험	해외 연수 계획	학교 교육	취업 학원	구직 활동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34	24	2	3	24	2	1	90
		%	37.8	26.7	2.2	3.3	26.7	2.2	1.1	100
	여학생	빈도	76	32	11	12	29	8	2	170
		%	44.7	18.8	6.5	7.1	17.1	4.7	1.2	100
학년	2학년	빈도	47	10	2	5	41	4	3	112
		%	42.0	8.9	1.8	4.5	36.6	3.6	2.7	100
	3학년	빈도	44	20	9	10	12	6	0	101
		%	40.6	19.8	8.9	9.9	11.9	5.9	0	100
	4학년	빈도	16	23	2	0	0	0	0	41
		%	40.0	55.0	5.0	0	0	0	0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28	25	6	4	6	0	0	69
		%	40.6	36.2	8.7	5.8	8.7	0	0	100
	상경	빈도	67	20	4	5	41	6	3	146
		%	45.9	13.7	2.7	3.4	28.1	4.1	2.1	100
	공학	빈도	4	2	2	2	0	0	0	10
		%	40.0	20.0	20.0	20.0	0	0	0	100
	자연	빈도	10	4	0	2	4	4	0	24
		%	41.7	16.7	0	8.3	16.7	16.7	0	100
	예체능	빈도	1	5	1	2	2	0	0	11
		%	9.1	45.5	9.1	18.2	18.2	0	0	100

취업을 위한 준비영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 취득으로 그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 37.8%, 취업준비 26.7%, 학교교육 2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취득, 취업준비, 학교교육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도 2, 3, 4학년 모두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2학년 때에는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학교교육이 36.6%로 학업성적에도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학년에 올라와서는 취업준비가 55.0%로 가장 높았고, 자격증 취득이 40%, 직접적인 취업경험이 5.0%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전공별에서도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계열에서는 자격증 취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취업준비방법

<표 15> 취업준비방법

특성		TV 방송	그룹 스터디	학원 수강	교내 특강	인터넷 강의	혼자 공부	기타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2	9	19	0	21	33	6	90
		%	2.2	10.0	21.1	0	23.3	36.7	6.7	100
	여학생	빈도	4	20	62	10	26	46	2	170
		%	2.4	11.8	36.5	5.9	15.3	27.1	1.2	100
학년	2학년	빈도	2	8	41	0	22	35	4	112
		%	1.8	7.1	36.6	0	19.6	31.3	3.6	100
	3학년	빈도	4	16	25	8	21	23	4	101
		%	4.0	15.8	24.8	7.9	20.8	22.8	4.0	100
	4학년	빈도	0	4	14	2	2	19	0	41
		%	0	10.0	32.5	5.0	5.0	47.5	0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2	8	19	4	12	22	2	69
		%	2.9	11.6	27.5	5.8	17.4	31.9	2.9	100
	상경	빈도	4	10	49	0	32	45	6	146
		%	2.7	6.8	33.6	0	21.9	30.8	4.1	100
	공학	빈도	0	0	2	2	2	4	0	10
		%	0	0	20.0	20.0	20.0	40.0	0	100
	자연	빈도	0	8	6	4	0	6	0	24
		%	0	33.3	25.0	16.7	0	25.0	0	100
	예체능	빈도	0	3	5	0	1	2	0	11
		%	0	27.3	45.5	0	9.1	18.2	0	100

취업준비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5>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혼자 공부함 36.7%, 인터넷 강의 23.3%, 학원수강 21.1%, 그룹스터디가 10.0%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원수강이 36.5%, 혼자 공부함이 27.1%, 인터넷 강의 15.3%, 그룹스터디가 11.8%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원수강(15.4%차이)을 통한 적극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학년별로는 2학년에는 주로 혼자공부, 학원수강, 인터넷 강의에 비중이 높은 반면, 3학년에 올라가면 TV방송, 그룹스터디, 학원수강, 교내특강, 인터넷강의, 혼자 공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에는 학원 수강을 통한 개인적인 복습을 위한 혼자 공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에서는 혼자 공부함이 각각 31.9%, 40.0%로 나타났으며, 상경계열과 예체능계열이 각각 33.6%, 45.5%로 이는 상경계열의 경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기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예체능의 경우에도 학원수강을 통한 교습이 필요시 되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또한 자연계열은 그룹스터디 33.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적인 실험과 실습보다는 그룹별 활동을 통한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12. 구직활동방식

취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주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표 16>과 같다. 대체적으로 공공정보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은 공공정보망이 47.8%로 개인적 연결망(28.9%), 제도적 연결망(2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공공정보망이 42.9%, 제도적 연결망 35.9%, 개인적 연결망 21.2%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36.6%, 3학년은 42.6%, 4학년이 67.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공정보망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개인적 연결망의 활용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경우 개인적 연결망, 공공적 연결망의 경우 각각 20%, 제도적 연결망은 60%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은 개인적 연결망이 25.0%, 공공연결망이 33.3%, 제도적 연결망이 41.7%로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학과 특성상 산학협력 등을 통한 제도적 연결망을 통한 구직활동 비율이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은 55.1%, 상경계열 43.2%, 예체능계열에서는 45.5%로 대체로 공공정보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6> 구직활동방식

특성		개인적 연결망	제도적 연결망	공공 정보망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26	21	43	90
		%	28.9	23.3	47.8	100
	여학생	빈도	36	61	73	170
		%	21.2	35.9	42.9	100
학년	2학년	빈도	42	29	41	112
		%	37.5	25.9	36.6	100
	3학년	빈도	13	45	43	101
		%	12.9	44.6	42.6	100
	4학년	빈도	6	7	28	41
		%	15.0	17.5	67.5	1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빈도	8	23	38	69
		%	11.6	33.3	55.1	100
	상경	빈도	44	39	63	146
		%	30.1	26.7	43.2	100
	공학	빈도	2	6	2	10
		%	20.0	60.0	20.0	100
	자연	빈도	6	10	8	24
		%	25.0	41.7	33.3	100
	예체능	빈도	2	4	5	11
		%	18.2	36.4	45.5	100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재학생들의 인적특성으로 학점등급은 3.5점 이상이 전체의 65.4%로 개인적인 학점관리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취득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도 전체 학생의 60.8%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8.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조사 결과 취업(79.2%)을 하겠다고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종으로는 대기업(35.0%)이 1위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70.5%)을 최대 1년까지로 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취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 '급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취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는 '지방대 출신'이라고 답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의사에 관한 질문에 42.7%의 학생들이 비정규직 취업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비해 준비하는 사항에는 자격증 취득준비(42.3%)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취업준비방법은 학원수강(31.2%)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방식은 공공정보망(44.6%)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당국은 취업활성화를 위한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 취업에 대비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학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학 중 인턴십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학년별 체계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진로를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내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상담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 [1]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김종성 · 이병훈(2009), 대졸자의 일자리 진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구직활동방식의 효과성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pp.50-72.
- [3] 김충기(1995), 교육개혁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 · 진로교육의 방향, 진로교육연구, 4 pp.60-78.
- [4] 박기열 · 천영민(2009), 대졸자의 취업 영향요인 분석, 200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pp.128-160.
- [5] 신현순(2009), 대학생의 직업세계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 [6] 이승연(2006), 청년 구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내 3개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이재창 · 최인화 · 박미진(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 [8] 이현정(2008), 대졸예정자의 개인적 특성이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24.
- [9] 임형택(1998), "대학생활과 진로" 교양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학생생활연구, 5집,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47-86.
- [10] 윤명희 · 서희정(1998),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평생진로개발역량의 탐색, 문화콘텐츠연구, 14,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pp.1-31.
- [11] 정소영(2009), 취업준비과정, 개인배경, 성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청년들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0.
- [12] 최동선 · 김나라(2004),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대학원 석 · 박사 재학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3] 한선옥(2004),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졸미취업자의 불합리한 신념이 취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 pp.15-16.
- [14] 한상근 등(2002),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 Ginzberg, E.(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Personnel & Guidance Journal*, 30, pp.491-494.
- [16] Jordan, J. P.(1963), Exploratory behavior :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self, In D. E. Super, et, al.(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17] Steffy, B. D., Shaw, K. L. & Noe, A. W.(198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35, pp.254-269.
- [18] Super, D. 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pp.2-9.
- [19] Tiedeman, D. V. & O'Hara, R. P.(1963), *Career development : Choice and adjustment*, Princeton, N J: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